

## 좌회전 금지표시 오히려 교통방해

성기수(KIST시스템 공학연구소)

조선일보 93.3.22.『讀者의견 여론廣場』

근래에 좌회전금지표시가 눈에 띄이게 많아졌고 이로 인한 불편을 겪을 때마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교통소통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직진하는 차들이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 같은데, 좌회전을 금지당해서 더 멀리 돌아가야 하는 차들에게는 시간과 석유낭비를 초래하고 좌회전을 못한 차들로 인해서 총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진하는 차들에게 도움을 줬는지도 의심스럽다.

좌회전금지표시가 늘어날 때마다 주행거리와 총에너지 소비가 느는 것만은 분명하다. 자동차의 나라 미국의 경험이 왜 활용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미국에서의 운전경험으로는 일방통행인 좁은 도로에 못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금지해 놓은 곳은 봤어도 넓은 교차로에서 좌회전금지를 써붙인 곳은 본 기억이 없다. 또 신호등에도 문제가 있다. 한국의 경우 좌회전 신호가 길어서 직진차들을 묶어 놓거나 좌회전신호가 너무 짧아서 좌회전차들에 불편을 주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네거리에 좌회전전용신호등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녹 황 적색의 순서로 신호등이 바뀌는데 적에서 녹으로 바뀌면 좌회전 차들이 먼저 나가고 다음에 직진차들이 나가며 황으로 바뀌면 적이 임박했다는 경고이고 적이면 멈춰야 된다. 좌회전차가 없을 때는 녹에서 처음부터 직진이고 반대로 좌회전하려는 차만 있고 직진차가 없을 때는 같은 녹색등에서 좌회전금지표시에 문제가 있고 좌회전 허용 신호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의 방식은 둘다 교통방해요인으로 작용할 때가 많다. 한국 특유의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의 교통 관련 표시판들과 신호등의 문제점을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낭비되는 석유와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다.